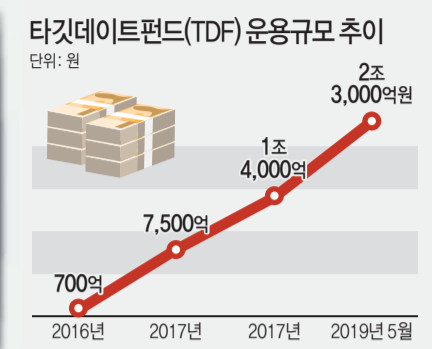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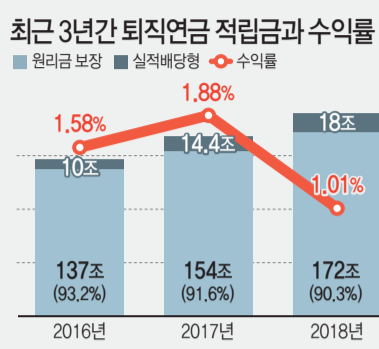


# 예금보다 못한 퇴직연금 수익률, '디폴트옵션'으로 빛 볼까

〈자동투자제도〉

퇴직연금 연평균 운용수익률 1%대 5년 평균 1.88%, 국민연금의 '절반' 시중은행, 타깃 데이트 펀드 각축전 상품군 연계 강화하고 라인업 확대



최근 퇴직연금의 연평균 운용수익률이 1%대에 머물면서 금융당국이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국민·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은 퇴직연금과 연계된 상품군을 강화해 여기에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3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각 은행의 퇴직연금 상품 수익률은 확정급여형(DB)을 기준으로 ▲신한은행 1.76% ▲KB국민은행 1.66% ▲KEB하나은행 1.72% ▲우리은행 1.66%로 나타났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인 1.99%보다 낮은 수준이다.

퇴직연금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 또한 1.88%에 그쳐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3.97%)의 절반

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추진

금융당국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운용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는 적당한 상품에 투자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상품

운용 지시권이 있는 DC형의 경우 가입자의 91.4%가 운용 지시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가입자 대부분이 은퇴 후 주 소득원인 연금의 운용 및 관리에 소홀하다는 것.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가입자의 무관심 등에 의한 불합리한 선택을 개선하기 위해 디폴트 옵션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또한 지난 10일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콘퍼런스'에 참가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디폴트 옵션 도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시중은행, 연계 상품군 강화

주요 시중은행은 퇴직연금 연계 상품군을 강화해 앞으로의 제도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퇴직연금과 연계된 주력 상품 중 하나로는 타깃데이트펀드(TDF·Target Date Fund)가 떠오르고 있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시점을 목표로 생애주기에 맞춰 자산을 알아서 조정하는 연금상품이다. 연금을 직접 운용하기 어려운 직장인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디폴트 옵션이 적용된 미국에선 노동자의 80%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효자상품이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기존 출시된 TDF에 이어 사회초년생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펀드(TDF) 2050'를 출시해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완벽한 상품 라인업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KB국민은행도 지난해부터 글로벌 TDF 자산운용사인 벵가드사와 제휴해

연금자산관리를 지원하는 KB온국민 TDF 판매를 개시했다.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덱스 펀드를 활용해 낮은 수수료와 글로벌 분산투자를 추구하는 상품으로, 2020년부터 2050년까지 5년 단위의 은퇴예상 시점을 기준으로 총 7개의 상품 라인업을 구성했다.

KEB하나은행은 은행권 TDF 상품 판매 1위의 실적을 기반으로 지난달 31일 연금손님자산관리센터를 신설하고, 퇴직연금 고객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추천과 운용중인 상품의 리밸런싱 등 고객 개개인의 연금자산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상품은 가입기간이 긴 만큼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아직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 옵션 도입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TDF펀드 등 연계 상품군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지난달 16일 인천 인하대학교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신한금융그룹, 중소기업 인식 개선 앞장

청년들에 '인식 개선 강의' 성료

신한금융그룹은 지난달 30일까지 진행한 '중소기업 인식 개선 프로그램-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과 중소기업 취업전략' 강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청년취업 두드림(Do-Dream) : 기고만장(氣GO滿場) 사업의 일환이다.

청년취업 두드림 사업은 4차산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육성된 우수 인재와 유망한 중소·중견 기업을 매칭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신한금융의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 중 하나다.

지난해부터 '청년취업 두드림 : 기고만장'으로 사업을 업그레이드 해 ▲중소기업 인식 개선 강의 진행 ▲취업역량 및 직무역량 강화연수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원정대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 취업전략' 강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 분석, 중소기업 선별 방법 및 중소기업 취업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전국 18개 대학의 2000여명의 청년구직자들이 참가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하반기에도 사업 참여 대학을 중심으로 취업전략 강의가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 1분기 은행 BIS 자본비율 15.4% '선방'

작년말 비율 상회... 은행별 온도차 '증자실패' 케이뱅크, 12.48% 그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자본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자 실패 등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본건전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 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5.40%, 13.33%, 12.74% 및 6.53% 수준이다.

지난해 말 대비 기본자본비율 및 보통주 자본비율은 소폭 상승했고, 총자본비율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모든 은행이 완충자본을 포함한 규제 비율을 웃돌았지만 은행별 온도차는 있었다.

신한·우리·하나·국민·농협 등 대형 은행(D-SIB)을 비롯한 주요 은행의 총 자본비율은 14~16%로 안정적인 수준

〈국내은행의 자본비율 추이〉

단위: %, %p

항목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년말 (a)	'19.3월말 (b)	증감 (b-a)
총자본비율	13.91	14.81	15.24	15.41	15.40	▲0.002
기본자본비율	11.36	12.51	13.12	13.25	13.33	+0.08
보통주자본비율	10.82	12.01	12.56	12.66	12.74	+0.08
단순기본자본비율	6.15	6.63	6.76	6.59	6.53	▲0.06

/자료=금융감독원

을 유지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13.41%, 12.48%에 그쳤다.

은행지주회사의 BIS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3.56%, 12.21%, 11.49% 및 5.65%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는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표준방법을 적용함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BIS비율이 낮게 산출된다"며 "우리금융지주의 신규 편입에 따라 자본비율 하락폭이 컸지만 현재 내부등급법 적용

을 위한 승인심사 신청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은행지주회사가 완충자본을 포함한 규제비율을 웃돌고 있다. 신한·하나·KB·농협 등 대형 지주사(D-SIB)의 총자본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투자지주(11.28%)와 우리지주(11.06%)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설 지주회사와 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등에 대해 자본적정성 관

/안상미 기자 smahn1@

## 신한카드 대한항공 마일리지 특화 '에어원' 카드

신한카드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1000원당 최고 2마일리지씩 적립해 주는 카드를 출시했다.

신한카드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특화 카드인 '신한카드 Air One' (이하 신한카드 에어원·사진)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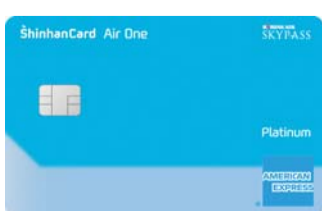
이 카드는 부가서비스 등은 없애고 고객 선호하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에만 집중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마일리지 적립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자주 찾는 항공, 면세업종에서 마일리지 추가 적립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니즈를 충실히 반영했다.

카드는 먼저 국내 출시될, 할부, 해외 일시불 이용금액 1000원 당 1마일리지를 무제한 적립해 준다.

국내 항공업종, 오프라인 면세점에서는 1000원당 1마일리지를 추가해 총 2마일리지 적립 서비스를 제공한다.

/홍민영 기자



## KEB하나은행 아동수당수급자 대상

KEB하나은행은 3일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를 위한 전용상품인 'KEB하나 아동수당 적금'을 출시했다.

KEB하나 아동수당 적금은 만 6세 이하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를 위한 정액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년제, 2년제, 3년제 중 선택 가능하다.

기본금리는 1년제 연 1.5%, 2년제 연 1.6%, 3년제 연 1.8%이며 아동수당 입금 시 연 1.0%의 추가금리가 제공된다. 또한 아이 본인명의의 주택 청약종합저축을 신규로 개설한 후 만기 보유할 시



/홍민영 기자

## IBK기업은행 국가유공자·경찰에 조건없이 금리 혜택

IBK기업은행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2019 나라 그리고 사랑'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실향민, 북향민, 직업군인, 경찰·소방공무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기업은행 지점에서 만기 1년 IBK적립식중금채에 가입하면 별도 조건 없이 연 2.15%(6월 3일 기준)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1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적립 가능하다. /나유리 기자 yul115@